

한 국 제 이 티 에 스
NEWSLETTER
vol.114
2015.0708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커버스토리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벌써 40도를 넘나드는 인도의 더위를 이겨내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원한 반팔 교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맹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P02 저체중아 검사를 위해 키를 재고 있는 아이



P13 김천에서 거리모금을 하다



P18 수자타아카데미의 새 여름 교복

Contents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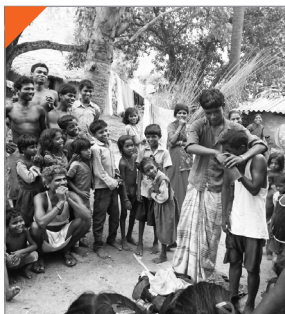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저체중아 지원하는 날 - 김민경
- 07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SPED학교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며 - 박시현



국내소식

- 11 함께 나누는 사랑
연등축제에서 함께한 인도 전통문화 체험 - 심영자
- 13 함께하는 사람들
김천에서 거리모금을 하다 - 김미형
가슴을 뜨겁게 한 거리모금 - 김희진



활동터소식

- 16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
- 20 후원인의 소리
- 21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펴낸날 2015. 7. 27 펴낸이 범윤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펴낸터 JTS
도운이 현희련,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희선, 김현지, 김옥희, 임금이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병원에 모인 마을 사람들

저체중아 지원하는 날

- 지바카 병원 앞에 사람이 가득 모였어요!



오늘은 한 달 중 지바카 병원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7월에도 어김 없이 저체중아 지원을 했습니다.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또는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오는 아이들. 지원 물품을 받아 갈 생각에 병원을 향하는 아이와 엄마의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김민경 활동가

병원에서 일하는 인도인 활동가들은 이번 달도 어김없이 저체중아 지원 준비로 분주합니다. 벌써 올해 들어 네 번째 지원입니다. 지바카 병원의 꾸준한 저체중아 지원사업 덕분에 등게스와리 15개 마을의 저체중아 사망률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도인 활동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말만 들어도 뿌듯합니다.



지원 일정은 활동가들과 상의해서 월초나 월말로 날짜를 잡는 편인데, 이번 달은 6월 말에 있을 회의 일정으로 인해 7월 4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지원 물품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시내의 가게에서 쌀과 달(렌틸콩) 샘플을 받아 와 인도인 활동가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곡물을 볼 줄 아는 활동가들이 적합한 품질의 쌀과 달을 선정합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쌀과 달을 가게에 주문하고, 머스타드 오일(겨자씨유)과 분유는 활동가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구매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장에 가서 가격 흥정을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지만, 인도의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다양한 동물과 사람, 그리고 쓰레기가 함께 어우러진 시장을 누비는 일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주문한 쌀과 달이 도착하면, 쌀은 4kg 단위로, 달은 2kg 단위로 개별 포장합니다. 2kg들이 고추장 통에 달을 가득 담으면 정확히 2kg이 됩니다. 쌀은 이 통으로 두 번 담으면 됩니다. 매달 이렇게 쌀 1,000kg, 달 500kg씩을 포장하다 보니, 어느새 병원 활동가들은 쌀과 달 포장에 도가 텃습니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칠 법도 한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시골벽적으로 웃어가며 즐겁게 포장을 합니다. 활동가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덩달아 웃음이 나옵니다.



달을 포장하는 활동가들

“아이들에게 체중계는 처음 보는 낯선 기계라서, 체중계에 올리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비스킷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인도에는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끊어오르던 날씨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쌀 포장과 마치고 나니 인도인 활동가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저체중아 234명에게 나눠줄 쌀과 달, 머스타드 오일, 분유, 비타민 시럽, 비스킷까지 물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물품을 일렬로 가지런하게 늘어놓은 모습을 보니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제 나눠주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체중아 물품 지원 당일, 12시부터 사람들이 병원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원 물품을 받을 생각에 밝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병원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제 마음도 왠지 모르게 가득 차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먼 마을에서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병원 활동가들은 체중계와 키 재는 도구를 준비하고 참가자를 맞이합니다. 활동가들은 저체중아 물품 지원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한 후, 산 너머 먼 마을에서 온 아이들부터 체중과 키를 재기 시작합니다.

저체중아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정확한 측정 수치가 필요한데, 키와 몸무게를 정확히 재는 일이 여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인도인 활동가들은 곳곳이 한명 한명 키와 몸무게를 기록해 나갑니다. 아이들에게 체중계는 처음 보는 낯선 기계라서, 체중계에 올리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비스킷이 필요한 것이지요. 비스킷으로 아이를 살살 달래가며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아이가 발버둥을 쳐서 도저히 몸무게를 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몸무게를 잰 다음, 내 체중만큼을 빼는 것이지요. 단순히 키와 몸무게만 재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명 한명 키와 몸무게를 재느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줄을 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면서 기다립니다. 어느덧 한 쪽에서는 공기놀이 판이 펼쳐집니다. 동글동글한 예쁜 돌을 모아 공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합니다. 이곳 아이들은 늘 맨발로 뛰어다니고 잘 먹거나 잘 입지 못하지만,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엄마가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며 분유 지원을 받아갔던 쌍둥이도 이날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쌍둥이인데 한 명은 심각한 저체중이고 다른 한 명은 정상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마른 아이에게 분유를 더 많이 주라고 엄마에게 신신당부해서 보냅니다. 다음번에는 쌍둥이 둘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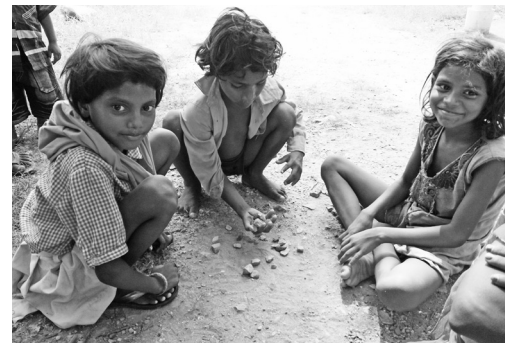
이날은 15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오기 때문에, 영양 상태 점검과 결핵 의심환자 점검도 한꺼번에 할 좋은 기회입니다. 저체중아 지원 도중에 심각할 정도로 마른 여성을 만났는데, 언뜻 보기에 너무 말라서 눈에 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결핵 환자라는 의심이 들어, 플라스틱 공병을 내어주며 다음 주까지 새벽 첫 가래를 받아 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원 물품을 받기 위해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



키를 재고 있는 아이



돌 공기를 하며 기다리는 아이들



쌍둥이인데 몸무게 차이가 크게 나는 두 아이



“신생아도 10명이 와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아이들에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품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지원 물품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엄마들의 발걸음이 아주 경쾌하고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면서도 전혀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1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4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저체중아 지원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 234명에게 저체중아 지원 쿠폰을 지급했고, 이 중 215명이 참석하여 91.8%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신생아도 10명이 와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아이들에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키와 몸무게 측정값을 토대로 저체중아 등급을 계산하여 지원 대상을 정하고, 8월 저체중아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수자타아카데미의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병원이 사람으로 가득 차니 즐거웠습니다.

학교 보수 후 외관 모습



SPED학교 보수공사를 마무리 하며

4월에 시작한 장애인 특수학교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필리핀 JTS가 민다나오 섬에 지은 첫 장애인 학교로, 지난 1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 낡고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박시현 활동가

SPED학교(Special Education, 장애인 특수학교)는 민다나오 섬 부키드논(Bukidnon) 주의 유일한 장애인 학교로, 딸라각(Talakag) 시에 위치하고 있다. JTS가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시각, 청각,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열악하였다. 이에 JTS는 지역 정부와 협조하여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화장실이 딸린, 교실 3칸 짜리 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다.

올해 2월, 필리핀JTS 활동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사장 법륜스님이 SPED학교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학교 수리를 약속했다. 이후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4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약 한 달에 걸쳐 학교 보수공사를 했고, 이후 6월부터 기숙사 보수를 시작해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수 전 스페드 학교 외부 모습



보수 전 교실 내부 천장 모습

올해 2월 말에 파견되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던 내가 SPED학교 보수 사업을 맡게 되었다. 낡고 망가져 곳곳이 보수가 필요한 학교 건물을 보니, 그간 불편했을 학생들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그런 상황임에도 교육청과 지방정부에서 건물 보수를 지원해주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불편한 채로 생활해야 했다. 다행히 학교를 지었던 JTS가 나서서 학교 운영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처음 계획은 방학기간 동안 학교 보수를 마무리 하는 것이었으나,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기숙사 부엌 지붕을 수리하려고 기존 지붕을 먼저 철거했으나, 새 지붕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이다. 그사이 학기는 시작되어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었는데, 매일 같이 비가 오는 현지 날씨 때문에 부엌 지붕이 없어서 밥을 먹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공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뒤 마음이 급해졌다. 건축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즉시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업자도 바로 고치겠다고 답변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당장 해준다는 말만 믿고 지나갔었는데 바로 고쳐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을 학생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컸다. 이후 부엌 지붕은 고쳐지만 그 일이 있던 뒤로 작은 일도, 이미 약속 받은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었다. '약속 했으니 당연히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도



보수 전 교실 복도 모습



보수 후 교실 복도 모습

내가 할 말을 전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재확인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배움이 되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만날 때마다 밝게 웃으며 수화로 인사한다. 현재는 청각장애 학생이 많아서 대부분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수화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볼 때 마다 밝은 기운을 얻는다. 하루는 SPED학교를 졸업한 청각 장애 학생이 다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 걸기를 부끄러워하는데, 그 친구는 먼저 나에게 필담으로 말을 걸었어왔다. 그날은 학생들 밥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봉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만약 JTS가 SPED학교를 지어주지 않았다면, 이 많은 장애 학생들이 밝게 웃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졸업한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보수공사는 단순하게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마다 비상구 문을 달고, 이동에 방해되는 벽을 부수고,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추가로 2개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하는 등,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교실 3칸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고 기숙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약 3개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고, SPED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는 그간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

“시청에도 이야기하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JTS가 보수를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JTS에서 일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연등축제에서 함께한 인도 전통문화 체험

- 인도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함께하고 글쓴이 일산 지부 - 심영자



지난 5월17일, 일산 지부의 자원봉사자 37명은 연등축제 부스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량이 통제된 조계사 앞 도로 양 옆에 길게 늘어선 부스들이 축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 JTS 부스에서는 빈디 그리기, 사리 입기 체험 코너를 마련했고, 홍보자료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관람객에게 빈디를 그려주는 봉사자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연등축제 관람객이 부스에 방문했고, 봉사자들은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이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빈디를 그려주었습니다. 빈디는 인도어 '빈두'에서 유래된 말로, '방울'을 의미합니다. 인도 여자들의 이마를 보면 두 눈 사이에 점을 찍거나 스티커로 장식을 하는데, 이것을 빈디라 부릅니다. 빈디는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고, 숨겨진 지혜의 자리이며, 제3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부스에서는 인도 여성 전통의상인 '사리' 입기 체험도 했는데, 인도 전통의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낸 관람객들은, 들뜬 표정으로 커다란 타지마할 사진 배경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단지 문화 체험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은 또한 지나가는 분들과 일일이 눈인사를 나누며 소식지와 안내서를 나눠주고, 제 3세계 구호활동에 동참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 중에는 JTS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이끄는 단체라 믿음이 간다며 이미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연등축제 최연소 활동가

이날 김순혜 활동가가 데리고 온 손자가 최연소 JTS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 한가운데서 천진한 미소로 팸플릿을 나누어주자, 행인들 또한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하고, 돼지 저금통 분양과 정기후원도 신청해주었습니다.

행사를 무사히 마친 많은 활동가들의 옷에 땀이 질게 배어 있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해낸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사를 할 땐 조금 힘들고 고되지만, 봉사를 마치면 그보다 더 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활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천에서 거리모금을 하다

경상북도 남서부지역의 김천은 사회·문화·산업·행정·교통·관광의 중심지이다. 겨울에는 소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 추위가 덜하고, 여름에는 매우 덥다. 전체인구의 35%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도시인 여기로 이사를 온지 벌써 8년이다.

함께하고 글쓴이 김천 지부 - 김미형

인구는 13만, 우리 지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많은 도시다. 김천역 부근에서 거리모금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 자전거 타고 가시는 할아버지나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휠체어 타고 가시는 할머니, 허리가 구부정하게 지방이를 짊고 배낭을 메고 근처 시장으로 나물 팔러 가시는 할머니, 노점상으로 과일 파시는 할머니 등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수줍게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여 “배고픈 아이는 밥을 먹어야합니다. 아픈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1,000원이면 두 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를 외치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쑥스러운지.

선배들은 노련한 솜씨로 잘도 하는데 그저 멀뚱멀뚱 서 있자니 한 시간이 또 어찌나 긴지. 그 속마음이 얼굴에서, 몸짓에서 보였는지 중절모 쓰신 할아버지께서 다가와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하며 모금통에 돈을 넣어주시고 가시는데, 덕분에 작아져있던 내가 조금은 커졌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일 하러 왔지. 부끄러워 할 필요 없다. 당당하게 하자.’ 목청껏 구호를 외쳐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동전이라도 주시고 가시는 분 등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부끄럽고 쑥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좋은 거리모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두명이 해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하고 당당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살기 바쁘는데 봉사는 무슨..’ 이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거리모금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도움을 주는 미덕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지 않았나. 그 과거의 빛을 돌려주자. 제3세계의 어린이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다른 이가 남몰래라 한다고 나까지 그러지 말자’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나 하나가 움직임으로써 세상이 참 따뜻해진다는 걸 알기에, “배고픈 아이는 밥을 먹어야합니다. 아픈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1,000원 이면 두 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를 외칩니다.

가슴을 뜨겁게 한 거리모금

함께하고 글쓴이 부천 지부 - 김희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는 어김없이 JTS 거리모금이 진행됩니다. 6월 27일 부터는 노옥경 활동가가 새로 담당을 맡아 거리모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가볍게 참여만 했다가 담당을 맡으니 마음이 무겁다했지만, 이내 즐겁게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힘들 법도 한데 모두들 열심히 외쳤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외침으로 굼고 있는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있고, 아픈 아이에게

약을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더위와 목이 아픈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불신하는 시선과 의심의 말을 던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도 배고프고 아프다며, 나도 좀 도와 달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모금함에 돈을 넣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나중에 돈 벌면 많이 넣겠다고 미안해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만 원짜리를 넣어 주는 통 큰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짜증내고 화내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진심을 담아 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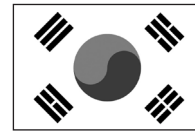
진심을 담아 외치면 외칠수록 모금함이 무거워졌고, 우리 마음도 뿌듯함으로 그득해졌습니다. 각박해진 사회를 걱정하던 마음이 진심이 통하는, 아직 따뜻한 사회임에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속에서 내일의 희망도 보았습니다.

오들도 거리모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가한 활동가들도 모두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며 감사해 했고, 햇빛에 달아오른 얼굴만큼 모두의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며, 뜨거운 가슴안고 돌아갑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1. 거제 지부 돼지저금통 정기 분양

단 돈 100원이라도 정말 어렵고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이나 주변에 숨어있는 동전을 모아보고자, 저금통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지고 거제 지부 활동가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저금통 분양을 하고, 배가 불러 돌아오는 돼지저금통을 열어 활동가들과 함께 계수합니다. 동전을 세는 게 쉽지 않지만,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질지 잘 알기에 다들 즐거워합니다. 6월에는 저녁반 유봉준 활동가 팀이 저금통 7개 154,040원, 주간반 양명선 활동가 팀이 저금통 3개 45,510원을 회수하여 총 199,550원이 모아졌습니다.



2. 노원중학교 돼지저금통 모금액 전달

7월 17일 서울 노원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은 나눔돼지 저금통 기부금 1,659,130원의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저금통 모금 행사를 주도한 박선화 선생님은 지난 한 달간 학생 600여명이 참가하여 돼지 저금통 회수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India 인도



1. 라홀나가르 이동진료

지바카 병원은 일주일에 두 번 이동진료를 통해 약을 나눠주고 결핵 의심환자를 체크하며 위생 교육을 합니다. 요즘 인도는 우기라 20분이면 갈 라홀나가르 마을을 1시간 가까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이동진료 도착을 알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위생교육 동영상 시청하던 아이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무슨일인가 살펴보니 마술사가 와서 마술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거없이 마술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해맑게 웃습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지만 사람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위생교육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싹 날아갔던 날이었습니다.



2. 병원에 TV설치

병원의 인도인 활동가인 삼부의 의견으로 병원 응접실에 TV를 설치했습니다. TV를 설치하는 날, 안 그래도 북적이는 병원 응접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TV를 보겠다고 학교, 마을개발 부서에서도 다들 구경 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봉사하는 활동가들도 모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이 TV를 통해 종일 보여줄 위생교육과 모자보건 교육을 통해, 동계스와의 주민들의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3. 여름 교복, 아차해(좋아요)!

지금까지 수자타이카데미의 교복은 매년 한 벌씩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40도가 훨씬 넘는 날씨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아이들은 긴 셔츠에 타이, 벨트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로 활동하기 좋은 교복을 새로 맞춥니다. 새 교복을 받고 활짝 웃는 아이들. 철퍼덕 앉던 아이들이 새 옷이 더러워질까 신발을 깔고 앉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진주항빛이 눈이 부십니다.



4. 함께 살고 함께 공부하고.

중학교로 진급했지만 글자도 전부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없을뿐더러, 집에 가면 청소하라, 집안일 하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기숙하며 학습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번 해보자!'는 교장선생님, 교사들과 인근 마을 교사들이 뭉쳐, 중학생 28명과 100일간 합숙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을 해먹고,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수업도 듣습니다. 아이들이 집보다 좋다며 참 좋아합니다. 통통했던 교감선생님 살이 싹싹 빠지고 있습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학교도 생기가 넘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꼭 찹니다.

5. 골절환자 엠블런스 지원

요즘 인도는 아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다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종종 나곤 합니다. 현재 지바카 병원에는 엑스레이 시설이 없어, 시내의 전문 병원으로 진료를 갈 수 있도록 골절환자들에게 엠블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언제나 긴급환자가 발생하지만 엠블런스 지원으로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깔라수안 학교 재건축 및 운영방안 논의

깔라수안 학교는 과거 임시교사가 파견되어 한시적으로 수업이 진행됐던 곳입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관할 주 교육청에 정규교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흠집으로 지어진 학교가 부실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청이 정규교사를 파견하지 않았고, 결국 2010년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JTS는 마을주민, 지역 군청,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학교 재건축 및 운영방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2. 다물록 지역 문구류 지원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물록 지역 14개 학교 학생들에게 문구류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마카파리 고등학교 학생 262명을 포함하여, 총 1,835명의 학생과 55명의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다시 문을 연 아폴란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칠판과 분필 하나로 겨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JTS의 문구류 지원을 더욱 반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다물록 지역 외에도 JTS가 학교 건축을 지원한 모든 학교에 문구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농장에 콩이 자라고 있어요

필리핀 JTS는 농가소득 증대방안 연구를 위해 다양한 작물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농장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로 키운 노란콩과 검은 콩이 자라고 있는데, 잦은 비에 양분이 많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거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 콩으로 콩나물을 키우거나 두부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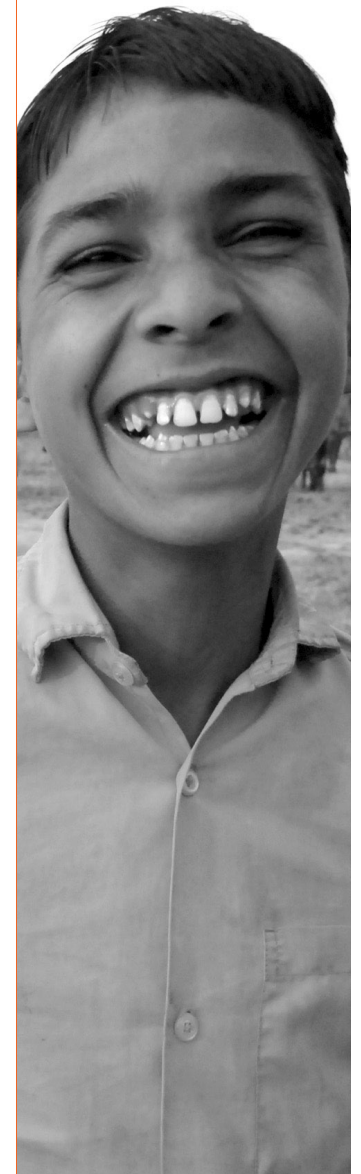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장도연, 뿌리양카, 박종화, 신예슬, 박영민, 강명희, 김미정, 김민경, 심애남, 정유진, *정동표
필리핀	안병주, 김희자, 박영일, 원석환, 이진옥, 송우진, 홍민지, 박시현, 오정심, *소재명

이정아 100,000	함께사랑채 291,560	김성현 20,000	서영현 30,000	이영석 75,000	지승현 50,000
이정여 5,000	함미정 30,000	김승희 50,000	서효재 400,000	이영숙 100,000	채경실 50,000
이정우 50,000	함미정 30,000	김아사 100,000	석태욱 200,000	이영실 1,000,000	최기숙 100,000
이정훈 20,000	함천감로사신	김용덕정연대정문교	설예린 30,000	이영화 30,000	최남희 100,000
이종은 10,000	1,000,000	300,000	소민경 130,000	이요한 20,000	최모정 310,000
이종현4149 5,590	하선희 30,000	김유정 50,000	소진호 30,000	이윤선 50,000	최복수 50,000
이지은 30,000	하진혁 250,000	김유진 50,000	손선영 100,000	이종애 30,000	최준하 100,000
이진경 30,000	화명 업서연 47,000	김윤홍 70,000	손우성 1,000,000	이주형 10,000	최혜린 1,000,000
이충선 10,000	황병수 500,000	김인근 50,000	손은숙 10,000	이준호 30,000	팽신희 100,000
이혁진 61,380	황선덕, 박순영100,000	김정환 2,000,000	신나는어린이집	이태경 100,000	하양원 30,000
임양호 50,000	황영애 10,000	김지식 50,000	89,100	이한숙 100,000	하재문 20,000
장영진3249 150,000	휴정암 2,200,000	김진환 50,000	신미라 50,000	이현숙 100,000	하지민 10,000
장세영 20,000		김태은 30,000	신종섭 10,000	임규연 30,000	한계진 50,000
장은미 200,000	네 팔 대 지진	김환숙 40,000	실내환경연구소	장상훈 100,000	한그루공방(김홍임)
장현련 10,000	긴 급 구 호	김현정 20,000	50,000	장은주 50,000	80,000
장경아 30,000		김혜영 350,000	삼백 20,000	장현주 100,000	한기력 10,000
장덕 100,000	58741489 20,000	김효정 50,000	안병석 8,000	전미정 300,000	한미경 50,000
장미영 서초법당	(주)베스트그린라이프	나종웅 100,000	안병주, 김희자 20,000	전서윤전시현전천주	한성욱 30,000
30,000	100,000	남화정 50,000	안상임 네팔 200,000	50,000	한승주 100,000
장서우 30,000	강경림 10,000	노태근 200,000	안연정 200,000	전소야 20,000	한양희 50,000
장수연6702 200,000	강미선 10,000	류근수 100,000	양태희 200,000	전화영 100,000	허대영 10,000
장애심 30,000	강민준 50,000	류금신 10,000	염명숙, 정성주	정관 150,000	홍진숙 10,000
장채수 500,000	강윤아 20,000	문형순 200,000	300,000	정교필 400,000	황은희 100,000
장환숙 200,000	강정근 20,000	미인희 50,000	오정희 100,000	정미란 300,000	황지희 50,000
장혜승 10,000	고수원 50,000	민지선 50,000	오진수 107,440	정미진 10,000	후원자 100,000
장혜정 10,000	고정희 50,000	박계란 10,000	원순영 60,000	정소연 30,000	SONGMEIYING
조대영 93,110	구홍두 50,000	박규흠 10,000	유명훈유지훈 50,000	정수옥 1,000,000	30,000
조순애 62,000	권영숙 300,000	박영주 100,000	유미란 50,000	정수옥 1,000,000	
조영자 20,000	권칭아 200,000	박일 100,000	유미숙 17,000	정연현 20,000	
조인숙 50,000	가신희 50,000	박정유 50,000	유승자 100,000	정원순 50,000	
족아이기 50,000	가유림 760,000	박종순 10,000	유영미 50,000	정윤정 100,000	
지승현 50,000	김경민 100,000	박형섭 50,000	유형준 50,000	정청훈 50,000	
지은아 1,000,000	김경연 20,000	배선화 50,000	윤미숙 50,000	정해승 10,000	
최경자 50,000	김경희 100,000	배정원 10,000	윤정영 50,000	정혜진 500,000	
최기원 1,000,000	김명호 50,000	배정은 100,000	이경임 100,000	조경화 50,000	
최영순 500,000	김미영 70,000	백경화 50,000	이기수 10,000	조도연 900,000	
최윤정 8084 24,550	김민영 300,000	백사영 300,000	이보윤 100,000	조영희 100,000	
최은심2401 30,000	김민호 40,000	서동욱 50,000	아삼순 200,000	조혜영 30,000	
하지민 10,000	김신희 50,000	서명화 50,000	아삼임 30,000	주원경 300,000	

해외JTS 후원금 (2015. 6. 01. ~ 2015. 6. 30.)

미 국 J T S	안성현 \$400.00	정연희 \$100.00	HYON C. KANG
2015년 6월	양상윤 \$100.00	정해주 \$100.00	\$200.00
	엄영옥 \$200.00	정해주 \$100.00	JUNG IE JUN
	오종윤 \$600.00	조경은 \$60.00	\$30.00
	오자수&오수빈 \$200.00	조경은 \$60.00	K&L ENTERPRISES
강문숙 \$300.00	위성틴 \$43.00	최경숙 \$50.00	BOND CLEANERS
권항석 \$100.00	원성훈 \$100.00	최만성 \$20.00	\$1,200.00
권항석 \$100.00	유주영 \$180.00	최만성 \$50.00	KYUNG J KIM \$5.00
권효주 \$10.00	이강준 \$51.00	최수영 \$90.00	LA JUNGTO
김미경 \$100.00	이동영 \$400.00	최용호&최애니 \$287.00	
김부연 \$2,000.00	이사다 쇼&신정현 \$220.00	최재연 \$80.00	Lee's Champion
김석주&김영애 \$100.00	이사다 패밀리\$100.00	최화정 \$100.00	Taekwondo
		하정욱 \$100.00	Academy \$100.00
김세중 \$20.00		하주홍&하혜숙 \$31.00	MICHAEL W YANG
김세희&선 매요 \$50.00		이원삼/이성실 \$100.00	Michelle Kim \$39.23
김세희&선 매요 \$200.00		한혜선&한윤홍 \$100.00	MICROSOFT
김순미/김학노 \$50.00		이재연 \$40.00	\$300.00
김영옥 \$50.00		이재민 \$365.00	한해진 \$100.00
김지현 \$60.00		이정민 \$50.00	Mira Shin \$122.22
김혜선 \$100.00		이중경 \$600.00	Mr. & MRS.
개정후속모임 \$2,224.21		이중순/한성후 \$200.00	Nakamura \$200.00
남희정 \$50.00		이주희 \$100.00	Olivia Lee \$400.00
남희정 \$50.00		이지민 \$20.00	RAY GREGOIRE
노유경 \$50.00		이지훈 \$180.00	CHANG CHEONG \$200.00
뉴저지법당 \$650.00		이지훈 \$100.00	SEUNGMIK YOU \$100.00
류지나 \$100.00		이진차 \$50.00	EDUARDO \$40.00
무주상 \$10.00		이화순 \$300.00	RODEIGVEZ SOONJIN
무주상 \$5.00		임선희 \$200.00	ENRRIGVEZ \$40.00
무주상 \$500.00		임선희 \$100.00	&FREDERICK C SCHEFFEL \$40.00
민윤기 \$120.00		임정민 \$300.00	H&H WORLDWIDE ,INC \$500.00
박경배 \$200.00		임하정 \$100.00	HAELIN RYU KIM \$1,200.00
박경배 \$100.00		장재규 \$100.00	\$100.00 YOUN KYONG WON
박태현 \$25.00		전은영 \$200.00	HOJONG KIM/ \$50.00
박현수 \$60.00		정소옥 \$50.00	JONGHEE SONG YOUNG
서흥석 \$50.00			MACCARONE
안선영&박희복 \$100.00			HYESEUNG LEE \$50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5년 5/6월 나눔저금통 현황은 다음 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정기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1. 후원사업 및 금액 후원을 원하는 사업(금액)에 V 표시를 해주세요.

인도 및 제3세계 돕기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필리핀 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북한 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JTS 전체 사업 후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원)

2. 후원회원 인적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
주소 (<input type="checkbox"/> JTS의 소식지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겠습니다.)	

3. CMS 후원금 인출계좌 후원금 계좌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모든 항목 필수)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년	월	일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인가, 예금주의 출금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은행명	예금주 연락처 :			
	후원금 출금일			
후원금 지정출금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매일

- CMS 후원회원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종 후원금을 인출계좌에서 JTS의 후원계좌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입니다.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 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 출금일인 10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17일과 25일에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JTS 후원계좌 안내

▶ **후원회원 계좌** 국민은행 086-01-0339-254 (사)한국제이티에스 (입금 후 꼭 전화를 주셔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자세한 약관은 www.jts.or.kr/donation/cms.html) 을 참고하세요.)
본인은 (사)한국제이티에스에 CMS 출금이체를 이용하여 지정출금계좌에서 지정한 출금일에 후원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단, 납출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한국제이티에스와 협의하여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출금이체, 연금,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후원금의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회원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원금 납부 | 수신행록 | 상영,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우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이용목적: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고우 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고우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대한 동의
제공대상: (사)금융결제원 | 제공목적: CMS 출금이체 (송인 및 정산 | 제공정보: | 예금주명 |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계좌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까지, 단,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제공대상: (주)유니스트트윈 | 제공목적: 회원관리, 후원금 결제, 온라인 회원 서비스, 기부금영수증 발행 | 제공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이메일 주소, 주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거래번호, 계좌번호 |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회원 탈퇴일 후 5년 까지

제공대상: 국제정 | 제공목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 제공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관기간: 5년 |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CMS 출금이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등 제3자 업무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단체)은 상기와 같이 (사)한국제이티에스의 정기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 : (인)

※ 단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1 3 7 - 8 7 5